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

9월 8일(일)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에서 기도회 합동 야유회를 겸한 mini 피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8시 미사후 출발) 복된 시간 되십시오. 남자 지참물: 장갑, 망치, screwdriver 큰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모여 하루를 주님과 하루를 보냅니다.

5

감사하는 마음은 예민하게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게으르고 둔감한 마음의 하늘엔 감사의 별이 환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사물들에 대해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듣고 먼저 용서를 청하고 먼저 용서하는 그 마음엔
평화에 뿌리내린 감사가 늘 푸른 산처럼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하느님과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빈 마음,
호흡하듯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안에 열린 넓이와 깊이로 감사하는
마침내 큰 사랑으로 이어지고 오늘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형에게
아우가 말참견을 하였다.
"그렇다면 형님,
행복은 종착역에 있겠군요?"
형이 한마디로 잘랐다.
"아니다. 여행 도중에 있다."

- 정채봉님의 '모래알 한가운데'중에서

9 11

주제: "Shaffer Park 야유회를 다녀와서"

진행; 김 필립보네리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 유스티노, 이 세실리아

공동 복음 묵상: 마태 18, 21-35(일곱번씩 이룬번이라도...) 참석가족: 16명

나눔;

김토마스: 즐거운 야유회였으며, 아무때나 묵상하기 좋은 장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거울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은 내 얼굴을 비추어 보이게 하지만,
내 마음의 거울은 평소의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비추어 보이게 합니다.
고요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내 마음의 거울에 내가 지낸
오늘 하루를 자세히 비추어 봅시다.
때문은 얼굴이 보입니다.
또 찢어진 옷자락이 보입니다.
일그러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거울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있어야 하고 자주 보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다시
꼭고 단정하게 매만져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서야
밖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고요한 저녁 시간에는,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 보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숙녀들은 어디를 가서 앉든지
우선 거울을 꺼내 봅니다.
식당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부지런히 거울을 꺼내 봅니다.
그리고 얼굴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자주 보고, 자주 닦으니,
그 얼굴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여성의 아름다움은,
아니 현대 여성의 아름다움은
아마 거울을 보는 데서 이루어진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으로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번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나 앉으나 서나
고요히 내 마음의 거울에 나의 행동,
나의 깊은 생각,
나의 인생을 비쳐보고 부지런히 닦아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인품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그 마음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씻어내고 닦아내지 않으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파괴는 거울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은 양심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인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를 찾아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차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 속의 거울을 보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울인 양심이 깨어진 것입니다.
거울이 없이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거울,

양심의 거울을 소중히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싶은책 에서-

9 18

주제: “무상으로 받은 은총”

진행; 채 마리아 음악봉사자; 최 유스티노, 이 세실리아 참석가족: 22명

공동 복음 묵상: 마태 20, 1-16(포도원의 일꾼과 품삯)

나눔;

-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려는날은 꼭 무슨 유혹이생겨 오랜만에 나와...
- 이 수산나: 공동체 구성원이 알아야할 많은 것들을 마태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 이니콜라스: 가두선교를 통해 가장 싫어했던 것을 하게하신 주님의 놀라운 힘이...
- 김토마스: 나중은 물론, 처음 포도원에 일하러간 사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 김필립보네리:처음이나 나중에 입교한 자. 모두 다 구원 받는다는 뜻으로 풀이하며..교회에서 오랜 봉사끝에 나름대로 상처받아 떠난 신자를 위하여 기도해 줄것을 당부...

;

-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에는 너희가 할수 없는것이 많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무슨일이던지 할 수 있다. 너희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집에는 크거나 작은이도 없고, 높거나 낮은 이도 없다. 내 집에는 모두가 똑같은 내가 사랑하는 이 뿐이다.
- * 너희 모두는 내 작품이다. 비록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도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을 바꾸려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라. 그것이 네 자신을 키우는 것이다.
- * 세상일에도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도 나를 따르는 방법이다.

%%%%%%%%

%%%%%%%%

6. 김 프란시스코형제, 석 마르티노형제, 한국 출장중입니다.
7. 유 요안나자매, 이 아네스자매, 한국으로 여행떠나셨습니다.
8. 루시아 자매님 동부로 9/18-30일까지 동부와 중부를 여행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좋은 여행이 되시길 빕니다.
9. 금요일(20일) 필로메나 자매님 다리 기부스를 제거하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 김 카타리나자매님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11. 배 바오로 형제님이 주님의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12. 김가리타스자매님 Oregon의 한 수녀원에서 병세악화로 저희들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 9/27()-9/29() SAN DAMIANO RETREAT CENTER 40 ()

: () 408-517-1193

@@@@@

@@@@@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취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 이인덕 루시아자매님, 오미영 마리아자매님 **계서 암과 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나 잘못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입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9 25

주제: “참된 믿음”

진행; 신안토니오 음악봉사자; 오 그라또, 최 유스티노, 이 세실리아 참석가족: 22명

공동 복음 묵상: 마태 21, 28-32(두 아들의 비유)

나눔;

신안토니오: 군시절 동료중에 할레루야 8 단과 10 단의 행동을 통해 비쳐본 진정한 믿음을...

석마르티노: 여행중”내 삶이 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되고...”

김프란치스코: 속세를 떠난 스님을 보며 믿음만 있으면 속세를 떠나지 않더라도 어디서라도..

이 니콜라스: 두사람 다 포도원에는 가기 싫었지만,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고, 동생은 구원받지 못...

이수산나: 두 아들의 아버지인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며, 우리들 다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전막달레나: 화를 잘 참지못하는 성격을 잘 참을수 있도록 변화시켜주신 성령께 감사하며..

김토마스: 형도 동생도 못되는 어정쩡한 나의 신앙생활을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주님의..

...

;

- *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받아드린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 주어, 아버지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라.
- *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하느님인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이 지구는 하느님의 발판이니 이 지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 * 나의 사랑에 등을 돌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죄보다 나의 사랑이 한없이 크다.

%%%%%%%%

%%%%%%%%

13. 김 프란시스코형제, 석 마르티노형제, 무사히 출장을 마치고 축복속에서 귀국. 기도에 감사.

14. 유 요안나자매, 이 아녜스자매, 루시아자매 여행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15. 필로메나 자매 다리 기부스를 제거하고 좋은 결과에 주님과 가족들에게 감사.

16. 배 바오로 형제님이 주님의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17. 김까리타스자매님 Oregon의 한 수녀원에서 병세악화로 저희들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18. 은사세미나(9/27-29)에 본당에서 3명 참석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이 듬뿍내려 큰빛이 되시도록 기도중에 꼭 기억해 주세요.

@@@@@

@@@@@

+ 생후 3개월된 **어거스틴양이 머리의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린 생명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기도의 힘을 모아 주세요.

- + 조영희 (수산나) 자매님 취장 수술후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빠른 시일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 김대중 토마스형제님, 이인덕 루시아자매님, 오미영 마리아자매님 께서 암과 투병 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 + 본당에서 매주 봉사하시던 James Walker형제님이 목의 종양으로 투병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5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길 위에 있습니다.
 좁은 길이든, 넓은길이든, 순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모두가 자기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열심히 걷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새 길도 만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가던 길을 끝까지 걸어야
 새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춘 사람 앞에는
 영원히 새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도 아름답지만
 내 앞의 길은 더 아름답고 소중한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언제 어디에 도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걷는 우리가
 새롭게 알고 느끼는 설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